

발간등록번호 11-1150000-000203-01

청소년보호 2004-20

2004 가출청소년 보호대책 토론회

# “가출청소년대책!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나?”

— 대책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

일시 : 2004. 10. 19(화) 14:00 ~ 17:00

장소 : 세종문화회관(별관 4층) 컨퍼런스홀

주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가출분과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 (CIP)

가출청소년 대책!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나? : 대책의 필요  
성과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성보  
효과 편. -- 서울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88p. ; 190×260cm

ISBN 89-8473-211-7 : 기타

334.3-KDC4  
362.7-DDC21

CIP2004001854

# 가출청소년 보호대책 토론회 일정

**사 회 : 이 배 근**

(세이브더칠드런 회장)

- 13:30 ~ 14:00    참가자 등록**
- 14:00 ~ 14:10    개회사 / 축사**
- 14:10 ~ 14:30    기조발제**  
**가출청소년 보호대책의 필요성** (김향초 협성대 교수)
- 14:30 ~ 15:00    과제별 발표**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방안**  
(박금혜 YMCA 청소년쉼터 실장)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발전방안**  
(윤현영 대전청소년쉼터 소장)
- 15:00 ~ 15:10    휴식**
- 15:10 ~ 15:30    과제별 발표**  
**대안교육 기회부여 및 취업지원방안**  
(‘들꽃피는마을’ 교사 및 청소년)
- 15:30 ~ 16:00    지정토론**  
김영란 소장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정태원 경위 (서울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 목 차

## ■ 기초발제

가출청소년 보호대책의 필요성 .....	9
(김향초 협성대 교수)	

## ■ 과제별 발표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방안 .....	29
(박금혜 YMCA 청소년쉼터 실장)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발전방안 .....	41
(윤현영 대전청소년쉼터 소장)	
대안교육 기회부여 및 취업지원방안 .....	53
('들꽃피는마을' 교사 및 청소년)	

## ■ 지정토론

김영란 소장 .....	75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 기 조 발 제

## 가출청소년 보호대책의 필요성

(김향초 협성대 교수)

# 가출청소년 보호대책의 필요성

김 향 초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소년가출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등장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출청소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일부 비행청소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크다보니 가출청소년의 예방 및 가출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조기발견하여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해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회를 잃고 있다.

지금의 당면과제는 청소년가출이 다양한 청소년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물론 방치할 경우 성인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는 사실이다. 즉 민간단체들에 의한 소극적,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출청소년정책에 대한 범정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국가차원에서 체계적, 종합적 접근책을 통해 청소년가출의 예방 및 문제해결에 기초가 되는 가출청소년보호대책(가칭)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가출청소년보호대책을 마련한 점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출청소년보호대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대책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가출청소년보호대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1. 가출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의 필요성

### 1) 청소년가출의 실태 및 문제점

가출청소년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집을 떠나 최소한 24시간 동안 귀가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일컫는데 여기에는 집에서 쫓겨난 경우도 포함된다. 이들은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자기 발로 집을 나온 경우도 있고, 가족갈등과 학교생활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집을 나온 경우도 있으며, 가족이나 학교에서의 참을 수 없는 폭력, 학대, 방임 등에서 벗어나고자 집을 나오는 경우 등 다양하다. 외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여 미국에서는 가출청소년이 겪는 심리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가출청소년 및 노숙청소년법에 의거하여 정부 차원에서 매년 수백만 달러를 이들을 위해 쏟아붓고 있지만 가출청소년문제는 미결상태로 남은 채 그 심각성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해체로 인한 이혼의 증가로 재구성된 가족, 편부·편모가족 형태를 갖고 있는 청소년이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2)의 조사에서 가출청소년 중 친부모생존(41.8%), 한부모생존(28.9%), 재혼(20.3%), 친부모사망(9.0%)으로 10명 중 6명 정도는 가정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해체 등 사회안전망의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출청소년의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손에 가족불화, 가족부적응과 같은 기능적 결손이 중복되면서 가정문제로 인한 청소년의 가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가출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결석의 경험이 있으며 자녀안심운동서울협의회(2002)의 조사에서 위기청소년 응답자의 59.7%가 복학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부적응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도 유해환경의 증가로 과거에 비해 일탈,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충동적·일시적 가출이 만성화된 가출로 고착화됨에 따라 사회에서 낙

오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가출청소년 실태조사(청소년보호위원회, 2002)를 살펴보면 일반청소년들 조차 가출을 문제행동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 가출행동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학생청소년들 조차도 10명 중 2,3명 정도만이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가출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뿐 10명 중 5명 정도는 불가피한 경우에 가출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명 중 2,3명 정도는 가출을 청소년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 있어 10명 중 7,8명은 가출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 속에 내재되어있는 욕구불만이 언제든지 가출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주어 가출추세의 증가를 예상케한다.

한편 가출시기도 첫가출이 초등학교 시기로 낮아져 가출의 저연령화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가출 기간이 길어지면서 단순 가출에서 벗어나 장기가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덧붙여 타의로 어쩔 수 없이 귀가하더라도 가출전의 문제가 미해결상태이고 가정내에서의 엄한 규제로 인해 재가출의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만성가출자가 늘고 있어 가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그 밖에도 이들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면서 성인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청소년가출은 어떤 사회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는가?

첫째,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성장기회의 상실이다. 청소년 초기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제공받아야할 신체적·정서적 보호와 사회화교육의 부재로 인해 정상적인 성장과 인격발달이 어렵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준비가 결여됨으로써 성인기로의 전환이 어렵다.

둘째, 학교중도탈락으로 인하여 교육기회의 중단을 초래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결여된 교과과정,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학교환경에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학업포기, 학교등교를 거부함으로써 학교중도탈락을 낳고 있다. 이러한 가출로 인한 교육기회의 중단은 취업능

력의 저하로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향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는데 장애를 가져와 노숙자의 길로 빠져들 위험이 크다.

셋째,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즉 가출시 외로움, 부적절한 숙식과 길거리에서의 불안한 생활, 현재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잊고자 술, 담배 및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형편없는 영양상태, 폭력에 의한 지나친 노출 등으로 인하여 영양실조, 피부질환을 겪고 있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등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등 성관련 질병과 임신으로 인한 유산, 출산 등 신체적 위험을 안고 있다.

넷째, 비행에 쉽게 연계되고 있다. 가출시 생존을 위해 유흥업소, 퇴폐업소에 불법 고용되어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며, 길거리에서 생존하고자 폭력, 절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곤 한다. 특히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길거리에서 경제적 도움을 얻고자 전화방, 원조교제 등을 통해 윤락행위에 개입하면서 성폭행당할 위험이 높다.

마지막으로, 조기가출 및 장기가출로 인해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조기가출한 청소년들의 장기가출화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는 성인범죄로까지 연장되면서 사회에 부담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만성가출청소년은 교육부족, 취업능력의 부족으로 성인이 되더라도 자립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 밖에도 가출청소년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다보니 범법행위에 대해 무디어지는 경향이 있다.

## 2) 가출청소년보호대책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출행동은 대부분의 청소년문제들과 얽히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어서 이러한 행동을 줄이는 것이 가출청소년 개인은 물론 그의 가족,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청소년가출과 관련하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들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출청소년의 수는 줄기는 커녕 증가추세이고 만성가출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더많은 서비스를 필요로 함에 따라 국가의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대처에서 탈피하여 청소년가출에 대한 범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즉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제1항),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청소년가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심각한 청소년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이제는 민간차원의 접근이 아닌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의 하나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대책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청소년 대부분이 생존을 목적으로 절도나 성매매에 빠지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비행청소년화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인적 자원의 낭비를 유발하여 사회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회문제라는 점이다. 이에 덧붙여 가출청소년들은 생계유지라는 당면과제로 인해 유흥업소에 유입되는 개연성이 많다보니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가출이 청소년 자신에게는 물론 가족, 사회, 국가에 미치는 위험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법적·사회적 여건이 시간이 지나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최근까지도 가출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부나 일반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소수의 민간 단체에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단편적인 서비스제공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법적·사회적 대책의 결여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그나마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셋째, 가출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호시설이 재정과 규모에 있어서 매우 열악하여 소수의 가출청소년에게만 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을 뿐 다양한 가출청소년의 욕구와 당면문제에 적합한 질적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낮은 임금과 과다업무로 인해 종사자의 이직율이 높아지면서 경험있는 종사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보니 서비스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 밖에 없고 보호시설간의 연결체계가 결여되어 업무상의 중복을 초래하곤 한다. 따라서 보호시설간의 특성과 전문성이 결여됨에 따라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

넷째, 가출청소년은 방치해둘 수 없는 미래의 중요한 사회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출청소년관련 정책은 산발적, 비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즉 정부내 가출청소년 관련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많은 부처들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출청소년 전담부서 없이 부처간에 업무중복 및 책임회피로 업무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됨으로써 오히려 민간기관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청소년에게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물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서비스, 교육서비스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화를 훈련시켜야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국가가 빠른 시간내에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개입하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빈곤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즉 정부 차원의 <희망투자전략 -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은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미래의 성장원동력을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 이러한 종합대책의 마련은 청소년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경향속에서 ‘미래의 희소한 자원’인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빈곤으로 인한 가출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종합대책은 가출 청소년을 줄이는데 매우 의미가 있다.

청소년가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방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명심할 때 가출청소년문제의 심각성에 부응하여 마련되어야 하는 가출청소년종합대책인 가출청소년보호사업은 무엇보다도 가출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보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청소년가출이 비록 본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것이라도 유해환경에의 접근가능성 및 이로 인한 위험을 고려할 때 국가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가출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인권착취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사회복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과 보호를 바탕으로 가출청소년의 법적 보호제도의 신속한 마련은 물론 가출 신고에서부터 위기개입, 사후지도에 이르기까지 가출청소년의 과제를 총괄하는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조기가출과 장기가출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국가차원의 가족,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가출전담 주무부서의 설치를 통해 업무의 일관성을 기해 청소년가출 보호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모색해야 한다.

그 밖에도 집을 나오거나 집에서 쫓겨난 청소년이 유해환경을 접하기 전에 집 밖에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단기청소년쉼터를 활성화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질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2. 종합대책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

### 1) 초기신속대응체계 구축

#### (1)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가출은 성매매, 비행, 범죄 등 2차 범죄로 연결되는 만큼 가출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찾기본부 등의 대응체계가 네트워크화되지 못해서 신속한 발견을 통한 적절한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의 경우 가출 및 위기청소년(거리배회청소년)을 발견시 관련규정의 미비와 민간보호시설과의 네트워크화의 결여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출청소년을 위한 핫라인인 1388, 1588-0954 등이 홍보부족과 24시간 서비스 미실시로 인해 이들의 조기발견이 어려운데 이러한 초기개입이 실패할 경우 바로 만성화된 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첫째, 가출청소년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러한 센터에서는 조기발견 및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며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출신고·접수 통합 및 시설간 네트워크 추진 등 가출청소년 보호활동을 총괄조정·지원하며, 보호시설, 보호단체, 관계행정·교육·의료기관, 보호관계자의 조직망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하여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출예방 및 가출의 장기화방지에 주력한다. 이러한 센터는 중앙통합지원센터와 시·도별 1개씩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출청소년 신고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참고로 가출통합지원센터의 설치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와의 업무중복문제로 인해 독자적인 설치가 어려울 경우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 가출관련 부분을 강화하여 가출통합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가출관련시설, 기관 자체의 연계체계 구축 및 신고체계를 확립한다. 즉 청소년관련 상담전화의 통합·연계추진은 물론 청소년상담소, 보호시설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가출청소년 신고정보 집중화와 정보공유방안을 강구하며, 가출

청소년 신고정보를 통합지원센터와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해 통신수단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가족이 통신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비밀번호 공개, 핸드폰 위치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2) Drop-in Center 설치 및 확대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사(2002)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출청소년은 물론 일반 청소년들도 청소년보호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인해 이용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이들이 부담없이 다가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이장소가 요구되고 있다. 아직 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 drop-in center라 하여 길거리를 배회하는 가출청소년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하는 샤워, 세탁, 간단한 음식, 구급약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의 특징은 하루중 일정 시간동안 문을 열어놓고 찾아온 청소년에게 개인신상에 관한 질문은 배제한 채 그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해주면서 유용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청소년이 원하는 경우 단기 쉼터 등과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따라서 대도시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drop-in center를 설치하여 보호시설로 찾아가는 시간을 줄이고 현장에서 부담없이 편안하게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함으로써 유해환경에의 접촉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한다. 참고로 별도의 drop-in center를 운영하기 보다는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drop-in center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안전지대 등 가출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망 구축

청소년이 가출하였을 때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보니 가출이 장기화, 비행화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오락실, 당구장 등에서 보내면서 장기가출로 이어지고 이런 출입업소를 통해 유해환경에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안전지대를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가출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지역내 가출청소년이 자주 접근하는 업소들과 연계하여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 즉 이들을 청소년 보호업소로 지정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에게 가출청소년통합지원센터나 가출관련 서비스기관에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케함으로써 조기개입을 통해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업소의 공익사업에의 기여를 보상해줄 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4) 거리상담 프로그램의 확대 및 체계화

가출청소년의 보호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이용을 저조는 물론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사회에 대한 불신이 상담실, 청소년쉼터에의 자발적 방문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가출청소년들이 배회하는 현장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즉각적인 위기개입을 통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거리상담프로그램의 확대실시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지원을 통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거리상담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이들이 길거리에서 알아야할 정보들을 소책자로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길거리에서 부딪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예방코자 한다.

## 2) 서비스조직의 체계화 및 서비스 강화

### (1)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설치·확대 및 프로그램의 특성화 추진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10여만 명에 달하는 가출청소년에 비해 가출청소년쉼터, 그룹홈, 선도시설 등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호시설들이 열악한 환경과 예산으로 인하여 이용율이 1.7%에 불과한 실정으로 소수의 가출청소년에게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숙식제공 위주의 단편적 운영은 시설 의존도를 높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노숙자, 하류계층으로 전락한 우려가 크다. 또한 시설간 소관부처가 상이하여 체계적인 시설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며, 유사한 보호시설의 난립으로 중복된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위기청소년 지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대부분의 청소년쉼터들이 보호기간에 따른 단기, 중·장기시설의 구분이 없이 보호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호시설의 특성화가 미비하고 가출청소년 보호시설간의 협력체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가출청소년발생시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귀가가 어려운 가출청소년을 위한 중·장기쉼터가 결여되어 있어 일시적인 서비스 제공 이후에 다시 길거리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여 가출로 인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첫째, 가출청소년 보호에 있어 민간 의존에서 벗어나 국가적 책임하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확대는 물론, 예방활동, 위기개입 체제구축, 사회적응지원프로그램 등의 관련 예산확보를 지원하며 시설간의 전문특성화를 통해 가출청소년 보호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가출청소년의 발생빈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둘째, 가출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산재해있는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을 통합하고 시설간 네트워크화를 강화하여 정보교류와 협조체계를 확립한다.

마지막으로, 장기가출청소년을 위해 기존의 공동생활가정의 활용 및 중장기보호 시설의 설치 및 확대를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훈련과정을 제공하여 자립을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전환생활 프로그램, 독립생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준비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 **(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화**

24시간 전화신고접수, 상담, 입소자보호 등 주·야 근무를 요하는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의 업무특성에도 불구하고 타 보호시설에 비해 과중한 업무수행, 낮은 급여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실무자의 이직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 예로 청소년쉼터 실무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기진작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3)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회환경 기반구축**

### **(1) 가족보존체계구축**

이혼증가로 인해 가정해체가 증가함은 물론 가정폭력, 방임, 학대, 가족내 갈등 등 가정기능강화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불화가 가출원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모대상교육은 민간단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정환경의 개선없이 가출청소년을 무조건적으로 귀가조치함으로써 재가출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출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해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부터 가족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가출청소년 발생시 상담명령제 도입을 통한 가족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부모상담을 의무화하여 재가출을 예방한다. 이에 덧붙여 가출예방차원에서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가출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준다.

## (2) 학교환경기반구축

가출청소년을 포함하여 현재 매년 6~7만 명 정도의 학생이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나(중·고교 학생중 1.8%) 이들이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습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다. 특히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단순한 학습위주가 아닌 취업, 자립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받기 원하므로 틀에 짜여진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출청소년에게 더욱 다양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는 소수 ‘특성화고등학교’ 밖에 없는데 이러한 학교는 설립주체, 설립기준, 교육과정 등에서 대안학교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덧붙여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지방에 위치하여 도시지역에는 대안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청소년이 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화 중·고등학교를 증설하고 특히 단순한 교육보다는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는 특성화학교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특성의 대안학교를 확대, 설치하여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교육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에 덧붙여 학교에서 가출가능성이 큰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예방교육과 예방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못함에 따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출충동시 친구와 의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교상담실 활성화를 위해 전문 학교사회사업가를 배치하고 가출경험 청소년 자조집단 형성을 통한 위기 청소년을 위한 또래상담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가출충동의 사전억제를 통해 가출을 예방토록 한다.

### (3) 노동환경기반구축

장기가출청소년의 경우 생계수단으로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으나 규제위주의 청소년 근로관련 법령 및 제도로 인해 이들의 근로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불법 취업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규정이 유명무실화하여 체임 등의 사례가 빈번하고 업주들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도 낮아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전국 규모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청소년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지방 노동사무소내 청소년 취업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 고용지원 및 단속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특히 기존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가출청소년은 자격미달로 참가 기회마저 없다보니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출청소년의 경우 직업훈련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학력이 낮은 가출청소년을 위한 단기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미비하여 직업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함에 따라 의식주 해결을 위해 청소년 성매매나 절도, 비행 등에 관여하곤 한다.

따라서 중도탈락 및 가출청소년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인턴취업 지원대상을 만 16세 이상으로 정하고, 취업대상을 비영리기관으로까지 확대시켜 가출청소년에게 취업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광역시·도별로 단기간 국비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고 훈련대상을 확대하여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 (4) 협력기관의 관계망구축

청소년관련 단체들의 가출청소년 지원 및 예방활동이 유명무실하고 가출청소년 보호기관간의 협력체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관련

복지관들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이용이 소극적인 편이다. 또한 경찰 등에서 가출청소년발견시 상담없이 단순 귀가조치를 취하고 있어 재가출로 이어지거나 학교복귀, 가정복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지역내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복지시설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가출청소년보호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 센터를 중심으로 보호시설, 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 4) 법·제도 정립

##### (1)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현행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는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어렵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출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위기개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가출청소년보호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단체, 관련기관을 통해 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해야한다. 아울러 2004년 내 (가칭)가출청소년보호법(안)을 마련하여 가출및위기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가출관련부서와 가출업무의 체계화를 모색하며, 가출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 (2) 신고제도의 확립

현재 청소년가출신고는 각 지역 해당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청소년가출

신고를 위한 별도의 전화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의 1388, 청소년상담원의 1588-0924 등에서 가출청소년 상담을 위한 핫라인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가출청소년 발견시 상담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집으로 귀가토록 하거나 부모 동의하에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경찰 및 보호자에 대한 신고의무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그 밖에도 가출청소년 신고접수기관인 경찰청과 보호시설간의 정보공유의 미비로 인해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가출신고를 위한 별도의 전화번호 마련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가출청소년을 발견 및 보호시 경찰 또는 가출청소년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가출청소년관련 유관업무 담당자의 경우 가출청소년 발견 및 상담중 가출사실 인지시 신고의무를 도입한다. 그 밖에도 가출청소년 신고정보 집중화를 위해 가출청소년통합지원센터 설립(또는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통합지원센터와 가출청소년 신고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호시설 및 경찰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 (3) 가출청소년 관련업무의 일원화 및 체계화

가출관련 소관부처의 난립으로 인한 가출청소년 관련업무추진의 혼선 및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체계적인 가출청소년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대상인 가출청소년은 소관부처의 업무영역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출입하고 있고 종합적 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 보호업무는 특정 업무별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3개 기관 -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으로 삼분되어 정책입안 및 집행되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청소년보호업무에 대한 정책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가출청소년 업무

를 주관하는 부처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주관부처 일원화를 통한 가출예방활동, 위기개입체제 구축, 사회적응 지원프로그램 등의 실천에 있어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3) 학교주변 환경의 개선 - 환경정화구역의 정비**

전국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청소년유해업소 5만 5천여개소가 영업중이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유해업소설치·허가비율이 3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은 학생청소년의 유해환경에의 접촉을 용이케 하여 유해환경의 피해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학교주변 환경정화구역의 재정비를 추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영업금지를 실천하고,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학교유해환경감시단의 설치·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주변에서 유해환경에의 접촉 자체를 차단케 한다.

### **(4) 보호처분 다양화 및 전문적 상담기능 강화**

우리나라의 보호처분의 현실은 단순히 보호관찰이 아니면 소년원 송치처분 밖에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호처분의 실효적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고 보호관찰관의 과중업무로 개별지도가 어려우며 보호위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도 어렵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치료 또는 성행 개선을 위한 전문적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경우 상담은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시설외 고위험군 비행청소년의 경우 국가 또는 사회의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소년법 32조에 상담처분 등 다양한 처분을 마련하여 보호처분의 다양

화를 통하여 문제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소년의 경우 시설내 처우보다는 사회내 처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보호처분의 다양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시설외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개입을 실천한다. 그 밖에도 소년원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청소년들의 적응과 진로상담을 실시하는데 보호관찰소의 경우 전문 상담원 양성 및 도입활성화를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출청소년보호대책은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가출청소년이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범국가차원에서 접근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과 제 별 발 표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방안**

(박금혜 YMCA 청소년쉼터 실장)

##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발전방안**

(윤현영 대전청소년쉼터 소장)

## **대안교육 기회부여 및 취업지원방안**

(‘들꽃피는마을’ 교사 및 청소년)



# 가출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발표

박 금 혜

(서울YMCA 청소년쉼터 실장)

## 1. 가출 청소년 현황

청소년의 일탈행위- 음주, 흡연, 폭력 등-를 사춘기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탈출심리가 일시적, 소극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본다면 가출은 보다 적극적이고 파괴적으로 나타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중고생의 12.4%인 120,793명이 가출경험이 있다고 하며, 현재 가출청소년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양적 증가문제와 더불어 가출 후 비행환경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과 이들의 비행이 점점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가출에서 중요한 사항은 단순히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들이 집을 떠나 위험한 환경에 접하면서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들이 가출했을 때 의식주 등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비행, 윤락행위로의 전락, 폭력집단(앵벌이 등)과 쉽게 연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하여 성인기에까지 이어지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최근 연구된 자료들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의 비행이 가출 후 사회적 경험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즉, 청소년이 가출 후 접하는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

을 비행과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혹하거나 희생자가 되게 하며, 결국 청소년 자신이 비행을 하는 결과로 이끈다고 본다. 또한 가출청소년이 집에서 나온 후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주목하며, 합법적 취업 기회 부족, 비행적 기회 접촉, 거리의 비행적 집단과의 연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이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sup>1)</sup>

가출청소년들 대부분은 가출 이후 거리생활을 시작하며, 생존을 위해 일을 찾게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된다. 따라서 그들 중 상당수는 자연스럽게 성매매나 기타 약물, 폭력등과 같은 범죄와 관련을 맺게 된다. 비록 이런 정도의 범죄까지는 아닐지라도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비행을 학습하게 됨으로써, 이는 곧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sup>2)</sup>

## 2. 조기발견의 필요성

청소년의 가출은 청소년 자신이나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가출이 장기화됨으로써 비행의 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가족 및 사회의 적응력 또한 더욱 약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출이 장기화·비행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출청소년 조기 발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동안 청소년의 가출이 발생하면 가출청소년의 가족은 파출소나 청소년 상담실 등에 신고하나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지역사회와 학교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어 개별적으로 가출청소년을 찾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스스로 되돌아오길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

1) 김지혜(2003), 가출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대한 해석적 연구

2)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외국의 가출청소년 대책

조기 발견시스템은 가출청소년의 문제를 가출청소년이나 그 가족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가출과 관련된 단체와 자원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출청소년의 가족 복귀와 재활을 지원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가출관련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만으로는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출 신고 및 접수 업무의 통합과 가출관련 제반 자원과 서비스의 통합 등을 통해 신속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출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가출청소년보호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을 돕고 이를 통해 가출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의 가족에게 신고 및 접수, 위기 개입, 사후지도 등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청소년 가출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에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가출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는 것에 매우 환영한다. 이러한 종합대책안이 잘 실현 운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가출청소년 보호 종합 대책 안에 의견을 첨부하고자 한다.

이중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 가. 가출청소년 신고 의무제도

신고의무를 규정할 경우 신고된 가출청소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법규정 및 사회적,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신고 후에 적절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신고의무만 만들어 놓고 사문화되어 버릴 수도 있으며, 신고 뒤 가출청소년을 귀가조치, 시설입소, 영구입양,

학대가 원인인 청소년의 경우 학대하는 부모에 대한 친권행사제한이나 처벌 등 구체적인 가출 경위나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가출청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이들 가출청소년이 믿고 도움을 받을 만한 법제도적인 보완이 없다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는 신고 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함께 언급이 되어야 하며, 가출청소년을 신고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신고 후에는 제대로 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오히려 신고를 더 꺼리게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신고의무자 선정과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출청소년 취업·숙식업소를 통한 신고체제 마련방안에 있어 자칫 청소년의 취업 자체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규제보다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준수,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환경 캠페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우수 청소년보호업소 등에 대해 홍보 및 시상을 통하여 사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나. 긴급전화상담의 필요성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장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은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협하기도 하고 촉진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등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유해환경에서도 이러한 환경이 주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보호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sup>3)</sup>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기관들이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이나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도움을 받을

3) 구본용(2003), 청소년 상담특수전화 통합방안 토론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수 있는 기관과의 즉각적인 접촉을 희망한다. 이러한 도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시설 중 하나가 바로 전화상담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사회에서 상담서비스 전달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전화상담기관이 운영주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전화상담을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의 부재,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의 전문적 영역에서의 단편화, 전화상담의 운영 방식, 그리고 전화상담자의 전문성,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조직의 영세성, 홍보의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 각 부처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들이 분산되어 활용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도 작은 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긴급전화 운영체제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전달체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상담 전화번호 (1388, 1588-0924, 1366, 1391, 1588-7179 등)를 단일화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전화를 설치할 경우, 가출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을 믿고 털어 놓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전문상담가가 24시간, 365일 대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다. 긴급쉼터(drop-in center) 등 다양한 형태의 쉼터 필요

가출청소년들 중에는 청소년보호시설을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꽤 많은 편이다. 길거리 생활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그들의 본거지를 떠나 쉼터로 상담을 하러 찾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상담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유롭지 못한 생활,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쉼터 입소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기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 이외에도 기본적인 위기 중심적 서비스만

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긴급쉼터(drop-in-center) 등 다양한 형태의 쉼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긴급쉼터의 운영은 보호대책안에 이미 제시된 바와 같이 별도의 긴급쉼터 운영이 아니라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를 통해 길거리 생활에 익숙한 노숙청소년들이 거리를 떠나 집이나 중·장기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라. 지역사회 자원확보를 통한 안전보호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안전보호소 프로그램(Safe Place Program)은 지역사회에서 기업과 자원봉사자, 청소년 복지 서비스 기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잠정적으로 안전한 피난처와 같은 장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보호소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15분 이내에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를 만날 수 있고 상담이나 쉼터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쉼터로 안내된다.

가출청소년이 가출 시 즉각 안전보호소로 오게 함으로써 위기상태의 청소년을 더 빨리 만날 수 있고 또한 상담자들은 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거리에는 청소년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이 거리로 나아가기 전에 상담자와 직접 만나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sup>4)</sup>

안전보호소 프로그램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일례로 서울YMCA에서는 거리상담의 일환으로 업소방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 출입 예상 업소 업주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쉼터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 및 그들을 위한 서비스 기

---

4)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외국의 가출청소년대책, 제2장 미국의 가출청소년대책

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청소년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인격체라는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있다.

#### 마. 거리상담(Out-reach) 프로그램의 확대 및 체계화

서울YMCA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76.4%가 가출 충동을 느끼고 있다. 실제 경찰청통계에서도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70만 명, 현재 가출중인 청소년이 10만 명에 이르고 매년 7만8천여명이 학교를 중퇴해 이중 상당수가 유흥업소에 취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2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YMCA에서 가출청소년 쉼터를 개설한 이래 95년 성공회 쉼터, 98년 서울시 및 5대 광역시 쉼터 개설 등으로 현재 전국에는 50여 개의 쉼터가 개설되어 있지만 늘어만 가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쉼터가 여러 장소에서 문을 열고 가출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의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과 환경 속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니 극소수의 청소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을 뿐 많은 수의 가출청소년들이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길거리 배회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출청소년 집결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출청소년들 대부분은 가출 후 공원에서 노숙하고, 숙식을 위해 성매매를 경험한 바 있으며,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가출청소년 중 34%는 공원, 화장실, 벤치 등에서 노숙을 한다고 하며, 이런 오랜 노숙생활로 인해 가출청소년들 대부분은 피부질환, 감기, 성병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sup>5)</sup>

가출청소년은 자신들이 매우 심한 위기에 처하지 않고는 도움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들은 가족, 학교, 직장, 복지서비스기관과 같은 주요 체계들로부터도 격리되어 있어서 서비스기관 실무자이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대다수 청소년에게는 자발적으로 기관에 찾아오려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의 정규서비스가 미치는 범위에서 훨씬 벗어나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필요한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지내고 있다. <sup>6)</sup>

따라서 쉼터에서 가출청소년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현장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쉼터에서는 97년부터 현재까지 여의도, 동대문, 대학로 등의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심야길거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리사회사업가가 청소년 밀집지역에 상주하며 가출청소년에게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심야길거리상담>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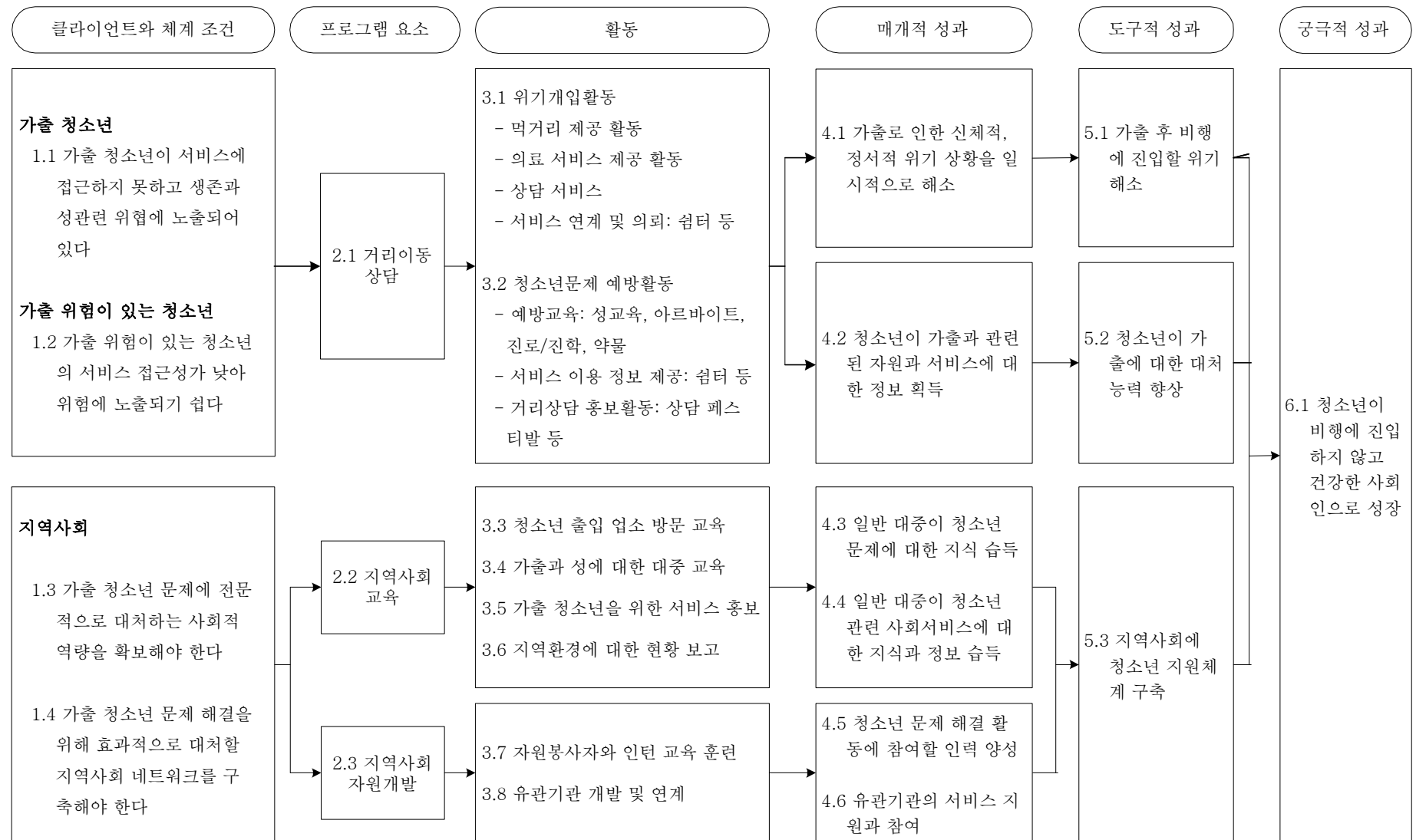
<청소년심야길거리상담> 프로그램은 ‘위기개입모델’에 이론적 토대를 둔 것으로, 가출청소년들과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밀집지역에 <심야길거리상담>을 상설화 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이곳에 전문상담가가 상주하여 활동함으로써 청소년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개별면접을 통한 욕구 및 문제의 사정, 위기개입을 통한 적절한 심리 사회적·물질적 도움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게끔 한다.

---

5)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6) 서울시(2001), 2001 브릿지프로젝트 사업보고서

이러한 가출·배회 청소년을 위한 거리 현장접근 서비스는 거리에서의 위기조정과 상담, 거처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알선, 생활변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소개 및 알선, 알코올 및 약물남용, 성병을 비롯한 육체적, 성적 폭행 등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예방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림 11> 브리지 프로젝트 논리모델 (김지혜 (2004), 논리모델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론 구축)

### 3. 맺음말

이제 더 이상 시설이나 구조화된 공간에서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청소년을 기다리는 때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활세계에서 그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변화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상담자 입장에서의 상담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의 상담의 시작이란 점에서 가출청소년을 만나는 보다 적극적 상담방법, 접근방법으로서의 새로운 모색이 될 것이다.<sup>7)</sup>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이 가출 이후 비행에 연계되기 전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들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와 연계체계를 갖추는 것을 통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과 이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식이 가능하며 이를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7) 김향초(2002), 서울YMCA 개설1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 가출청소년 보호 시설의 발전방안

윤 현 영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 소장)

아동·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이 건강한 성인으로의 독립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여러 이유들로 해서 가정을 떠나고 있다. 가출이든 탈출이든 혹은 퇴출이든 가정을 떠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학교도 떠나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회화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개인적인 불행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된다. 특히 청소년가출이 증가 추세와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나 시설들이 그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설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아동·청소년가출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 1) 문제제기

사회의 각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애정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결국 가

출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사회의 자원으로 성장하여 가는냐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국가의 이해와 의지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게 전체 청소년에 관한 예산 자체가 매우 빈약함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며 특히 가출청소년이 전체 청소년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으로 인해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결과로 이들이 성장한 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예측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가출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여러 문제들이 얹혀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부처 실무자들의 청소년가출현상과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출현상을 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고 그 시각에 따라 가출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에 관한 매우 많은 제안들이 있지만 크게 갈등형과 거리청소년-즉 생존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갈등형 가출** : 가족 갈등이 가출의 주원인이며 가출 기간이 짧고, 가출한 청소년이 2차 비행으로 연결될 위험이 적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통제와 의사소통의 비효율성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가출이 이에 해당되며 학교나 상담실 및 가족 자체의 노력으로 가정복귀가 대체로 가능하다.

■ **생존형 가출** : 빈곤,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출 혹은 탈출하는 경우이다. 재가출 및 상습가출로 이어지며 가출기간이 길고 심리, 경제적 지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2차 비행으로 연결될 위험이 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거리화·노숙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급히 보호하여 도와주어야 하는 가출청소년은 후자인 생존형 가출청소년이다. 생존형 가출 청소년들은 절도나 폭행

및 성매매 등의 비행, 범죄조직과의 연루, 기관 전전 등의 생존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쉼터 입소생들의 많은 수가 이미 만성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성화되었다 함은 가출청소년들끼리 어울리면서 스스로의 지지문화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나름대로 안정화되어간다는 뜻이고 이것은 또한 문제의식이 점점 희미해져서 만성화된 문제집단으로 고착되어 버림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시 위해서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많은 인력과 전문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세우거나 예산을 배정하는 관련부처 실무책임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이미 운영되고 있는 보호시설들의 여러 여건도 매우 열악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 2) 개선 방안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돕기위해서는 관련 부처 실무진들이 청소년가출의 특성과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많은 자료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가출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법무부, 학계 연구진, 현장실무진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워크샷등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특성과 실태를 이해하고 역할을 논의하는 장의 마련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 보호체계의 비효율성

### 1) 문제제기

가출청소년들의 특성은 매우 독특하고 또한 많이 다르다. 따라서 그들의 특성에 맞는 보호, 교육 기관과 시설이 만들어져서 서비스프로그램이 조직되고 제공

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에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결국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그것들을 시행하는 기관 및 시설도 다양화·특성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갈등형 가출인 경우에는 학교상담교사 혹은 청소년상담실이나 기타 상담실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생존형 가출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개입과 장기적인 사례관리를 필요로 한다. 즉 drop-in-center → 단기쉼터 → 중기쉼터 → 장기쉼터 혹은 그룹홈의 형태로 차별화, 특성화하여 보호하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쉼터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으로 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많은 수의 가출청소년들은 이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기준에 근거한 ‘바람직한 생활’을 하는 것에서 거둬진 실패를 경험했으므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그들은 보호기관을 회피하게 되고 더욱 음성적으로 숨어들어 그들을 만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러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데 단기나 장기쉼터의 형태로는 어렵다. 그들을 처음 만날 수 있는 contact-point는 근사한 시설을 갖춘 기관이 아니라 거부감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 즉 drop-in-center(일시보호쉼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Drop-in-center의 목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출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 위기에서 구출하여 2차 비행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다. 둘째, 가장 노련한 실무자를 배치하여 그들을 만나는 짧은 시간 내에 아이들의 내면을 건드려 줌으로써 서비스 수혜의 욕구를 발생시켜 계속 연결을 맺을 수 있게 한다. 셋째, 가출청소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개개 가출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담이나 치료 및 특성에 맞는(개방형/폐쇄

형) 단기쉼터로 연계시킨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서 간판이나 호화로운 시설이 없이 간단한 의약품, 세탁시설, 샤워시설 그리고 라면 등의 간단한 음식 등을 갖추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drop-in-center는 그 위치와 배치된 실무자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해정도와 접근 기술, 즉 전문성이 운영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단기쉼터는 4주~8주간의 보호기간 동안 입소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심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입소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파악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 연계시키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한다. 따라서 단순한 심리치료나 상담기능 뿐 아니라 co-ordination의 기능이 필수적이다. 이곳에서 가정복귀·직업훈련·학교복귀·중·장기쉼터 등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고 준비하게 된다. 그리고 중·장기쉼터 혹은 그룹홈에서는 보다 안정되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태도학습과 독립을 위한 훈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본격적인 독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습가출청소년들의 특성상 backsliding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사후관리가 상담기간 필요하다.

이렇게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장기간의 사례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출청소년보호가 거의 단기쉼터와 그룹홈의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으로 해서 만족스러운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2) 개선방안

각 보호기관과 시설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 별 기관이 각 지역 별로, 적정한 수만큼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시설구성안, 서비스 흐름도(별첨)

# 가출 청소년 보호 서비스 흐름도

직업학교

대안학교

기술학원

## 가출 청소년 통합 보호 센터

군/구  
drop-in-center

군/구  
drop-in-center

군/구  
drop-in-center

군/구  
drop-in-center

시. 도/군  
남 · 녀 단기쉼터

남 · 녀 중기쉼터

남 · 녀 장기쉼터

자활  
사회통합

직업훈련원

검정고시 학원

위탁교육기관

# 가출청소년 통합보호 센터

기 능

- 정책·방향 결정, 연구·조사, 슈퍼비전, 프로그램 개발, 실무자 교육, 대외사업 진행

	군 / 구	시 / 군	시 / 군	시 / 군
설치시설	drop-in-center	남 · 녀 단기쉼터	남 · 녀 중기쉼터	남 · 녀 장기쉼터
보호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장 12시간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장 30일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장 1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li> </ul>
위치/갯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주 작은 규모로 가출청소년 밀집지역마다 설치 (군/구에 적어도 하나씩 설치)</li> <li>▪ 접근성이 뛰어난 곳</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에 남· 여쉼터 각각 설치</li> <li>▪ 남· 여 쉼터는 공간 위치상 분리</li> <li>▪ 우범지역이나 도심을 벗어난 곳</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에 남· 여쉼터 각각 설치</li> <li>▪ 남· 여 쉼터는 공간· 위치상 분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에 남· 여쉼터 각각 설치</li> <li>▪ 학교/직업훈련 등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곳</li> </ul>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출청소년 접촉</li> <li>▪ 가장 최근 동향 파악</li> <li>▪ 시급한 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식· 의료서비스 제공</li> <li>▪ 문제 파악 및 분류</li> <li>▪ 위기 개입</li> <li>▪ 자유로운 입· 퇴소</li> <li>▪ 개개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디자인</li> <li>▪ 중기쉼터로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자활교육 실시</li> <li>▪ 심신안정 및 사회적 기술과 생활태도 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직업훈련</li> <li>▪ 사회통합 훈련</li> <li>▪ 생활관리 및 독립 지원</li> </ul>
최소 실무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자 3인</li> <li>▪ 유급 자원봉사자 3인</li> <li>▪ 일용인부 1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자 6인</li> <li>▪ 유급 자원봉사자 2인</li> <li>▪ 일용인부 1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자 4인</li> <li>▪ 유급 자원봉사자 2인</li> <li>▪ 일용인부 1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자 4인</li> <li>▪ 유급 자원봉사자 2인</li> <li>▪ 일용인부 1인</li> </ul>

### 3. 보호기관 수와 재정의 부족

#### 1) 문제제기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과 시설의 수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쉽 터	그룹홈	선도보호시설
소관부처 (근거법)	문화관광부 (청소년기본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여성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
시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쉼터 전국 36개소</li> <li>• 중기 쉼터 전국 1개소</li> <li>• 일시보호쉼터 전국 3개소- 1개소는 운영 중, 2개소는 운영 준비 중 (문광부, 시·도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32개세대 (04.3월)(보건복지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35개소(04.3월)</li> </ul>
인원	465명(정원)	171명(현원)	715명(정원)
보호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평균1개월, 최대6개월</li> <li>• 중기: 1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및 장기보호로서 정해진 기간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시설:3개월(연장가능)</li> <li>• 중장기시설:6개월(연장가능)</li> </ul>
소요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개 시도 18개 쉼터 지원 (1개 시도 2개 쉼터는 신설비 지원)</li> <li>- 각 시도당 쉼터 운영비 35백만원, 청소년의료비 20백만원 지원</li> <li>○ 사·도에서도 국고에 상응한 금액 예산 편성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백만원(국비기준, '04년)</li> <li>- 보호자인건비 : 14,641 천원/인·년</li> <li>- 관리운영비 : 183천원/ 세대·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운영소요 국고예산 : 2,258백만원( '04년)</li> <li>- 운영비, 기능보강비 (장비, 시설개보수비)</li> <li>※ 30개 시설 지원</li> </ul>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먼저 위에 제시된 자료들을 비교하여 보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얼마나 부족한 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쉼터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먼저 최일선에 있는 일시보호쉼터(drop-in-center)를 보면 국비 지원을 받는 곳은 유일하게 한 곳이 대전에 2004년 5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과 인천에 두 곳이 준비 중에 있을 뿐이다. 전술한 대로 일시쉼터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청소년가출의 최근 동향을 가장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은 이미 가출청소년보호의 시작에서부터 심각하게 그 효율성이 의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 운영되고 있는 단기쉼터의 경우에도 국비 지원을 받는 곳은 14개소이며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국비지원을 받는 곳이 없다. 이것은 지역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와 더불어 광역시나 도로 볼때 한 곳만이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은 남,녀 가출청소년을 한 곳에서 같이 보호한다든지 혹은 남, 녀 중 한쪽만을 보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비로 전국에 14개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할 지라도 예를 들어, 내가 남자 가출청소년일 경우 내가 있는 지역에 여자쉼터만 있고 남자 쉼터와 일시쉼터가 없다면 결국 내가 갈 수 있는 쉼터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생존을 위해 절도 등의 비행을 자지르게 된다.

국비로 지원되는 중기 쉼터는 한 곳도 없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남자 중기쉼터가 2004년 9월, 서울에 처음으로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이러한 현실은 단기쉼터에서 입소자들을 의뢰할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로 단기쉼터들이 중기와 장기입소자들을 같이 보호하게 되고 이것은 보호의 비효율성과 업무과중 등의 근무여건악화로 인한 실무자의소진, 잦은 이직 등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재정의 열악함도 잘 드러나고 있다. 단기쉼터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년 예산이 7,000만원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세명의 실무자 인건비와 운영비 일체를 이것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평균 보호 인원이 적어도 6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숙식, 의복, 적절한 상담과 심리검사,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재정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달 평균 10일 숙직 등의 과중한 업무에다 낮은 임금같은 비현실적인 대우들은 실무자들의 잦은 이직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서비스의 질의 저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재정 부분에서 또 하나 문제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지역에 따라 그 차이가 몹시 심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곳이 예산이 가장 높는데 지방 컴퓨터 중 가장 열악한 곳은 1/4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들로 해서 “가출도 서울에서 해야 호강한다”는 자조적인 농담을 실무자들이 하곤 한다.

## 2) 개선방안

우선 과감한 투자를 통해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관 및 시설들을 기본적인 수만큼은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시보호센터를 가출청소년 밀집 지역마다 만들어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되도록 많은 수의 가출청소년들이 단기쉼터로 의뢰되어 안정된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실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충분한 인력확보, 시설 개선,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적절한 문화활동 지원 등 보호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꾀해야 할 것이다.

## 4. Supervision기관의 부재

### 1) 문제제기

1992년에 처음 가출청소년쉼터가 개소된 이래 가출청소년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지 거의 10년이 되어간다. 이제는 전국에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쉼터 이외에도 다른 많은 가출청소년 보호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보호기관과 시설들이 만들어 질 것이다. 그러나 인력과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적을 분석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현장과 괴리된 정책들이 수립되거나 각 주무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들이 실제 가출청소년들에게까지 잘 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 등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가출청소년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mapping이 가능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 등의 기초 자료제공, 프로그램 개발, 실무자교육, 정책결정에의 참여 및 supervision을 각 쉼터에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가출청소년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개선방안

상담실에 상담원이 있듯이 가출청소년 보호시설들에도 그러한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의 보호시설들을 다 수퍼비전하는 기관의 형태도 좋고 또는 각 지역 별로 통합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장경험이 있고 여러 면을 아우를 수 있어서 여러 관련 분야를 연결할 수 있고 실무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면 가출청소년 보호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현장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의 문제와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개선되기는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기본 방향을 제대로 잡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중요한 자원인 가출청소년들 보호에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참고문헌

- 김향초(2001). 『청소년가출의 이해와 개입방법』, 도서출판 나눔의 집.
- 문화관광부(2002). 「청소년백서」.
- 서울 YMCA(1998). 「청소년가출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 유성경(2000). 「청소년가출」, 한국청소년상담원
-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시스템 구축」.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가출청소년 경로현황 및 단계별 대응과제」.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a). 「청소년보호백서」.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b). 「200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2003가출청소년 보호대책 토론회 자료집
- 청소년보호위원회(2004)가출청소년정책집중조정과제(미발표)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2). 「전국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 연구」.
- 한국청소년개발원(1999).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위기 청소년들의 진로 및 자립 방안을 위한 학습 동기 부여에 관하여

청소년 보고자 :

이 은 해 들꽃피는 학교(16)

김 홍 렬 들꽃피는 학교(18)

지도교사 : 정 기 영

## I. 서 론

들꽃피는 마을에는 약 60명의 청소년들이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가출과 이혼, 폭력 등을 경험하고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다.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은 무한한 꿈과 재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해체로 학습의 기회를 잃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며, 삶에 대한 의욕도 많이 상실됨을 본다. 이런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교육하기란 쉽지 않다. 배움의 욕구도 없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동기유발을 시키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청소년 기관에 입소된 청소년들은 입소 후에도 아무 수고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수혜 혜택이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됨을 자주 보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교육적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계기를 통해 특수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 다양한 시도와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도움을 받기만 하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들꽃피는 마을은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살려 청소년들도 마을 운영의 주체가 되어 운영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운동 및 청소년 운동까지도 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정 폭력과 가출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다시 주고, 꿈 꿀 수 없었던 그들의 미래를 다시 찾아 줄 수 있어야 하며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청소년기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진로 및 직업 자립의 학습 기회를 통해 과거에 큰 좌절감과 가정의 박탈감을 앓은 이들이 무기력에서 벗어나 삶을 의욕적으로 살수 있도록 성취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스스로 꿈을 찾아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학습화 한 내용을 소개 하고자 한다.

본론의 1장에서는 가정의 폭력 및 가출 청소년들의 입소 당시의 정서 및 지적 능력에 관한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며 2장에서는 마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제적인 학습 내용을 소개하며 3장에서는 학습 참여자의 구체적 실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보고서의 제한과 범위- 들꽃 피는 마을 내 그룹홈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여러 부분 중에 진로 및 직업 자립에 관련해 주요 부분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 보고서는 실제 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데 큰 의의를 두고자 한다.

## II. 본 론

### 1. 대상의 특성 및 현황

다음은 2004년 7월에 가족기능 강화 사업 팀이 들꽃피는 마을 내 46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참고 하였다.

#### 1) 신상 파악

### (1) 성별 및 연령

성별은 남학생이 20명(43.5%), 여학생이 26명(56.5%)이며 연령별 나이는 15~16세와 18세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다.

### (2) 학력

현재 교육상황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17명(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폭력이나 방임으로 인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거나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전체 인원 중 16명(34.8%)을 차지했다.

학교	일반학교			대안학교		기타 (자퇴)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	고등교육		
인원(명)	1	17	11	5	11	1	46

### (3) 원가족 사항과 가정 폭력 노출 정도

입소 청소년 46명 중 22명(47.8%)이 부모 모두가 있고 부(父)만 있는 인원은 15명(32.6%)으로 모(母)만 있는 인원보다 13명(28.3%)이 더 많았다.

부모유무	빈도(명)	백분율(%)
부모	22	47.8
부	15	32.6
모	2	4.3
두 분 다 안 계심	7	15.2
총	46	100.0

입소 청소년 46명중 신체적 학대가 있었던 청소년은 37명으로 80.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의 청소년인 경우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가해자는 전체 46명중 26명(56.6%)이 친부로 나타났다. 최초로 폭력이 있었던 때는 9세~12세가 14명(48.2%)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는 18명(39.1%)이 어려움이 있었고 19명(41.3%)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도구(혁명, 몽둥이, 채찍 등)로 맞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46명 중 28명(60.9%)이 이에 해당되었고 괴롭히는 말(폭언, 고함, 욕설, 비난, 무시)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는 35명으로 73.9%를 차지했다.

방임의 경우 밥이나 약을 챙겨주지 않는 것처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임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 (41.3%),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하지 않으신다’ (56.5%)와 같은 심리적 방임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는 괴롭히는 말(폭언, 고함, 욕설, 비난, 무시)을 경험한 경우 1년에 1~2번, 일주일에 1번을 포함하여 32명(67.4%)이었고, 이중 일주일에 한번이 18명으로 39.1%를 차지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어른들이 심하게 싸운 경우는 27명으로 56.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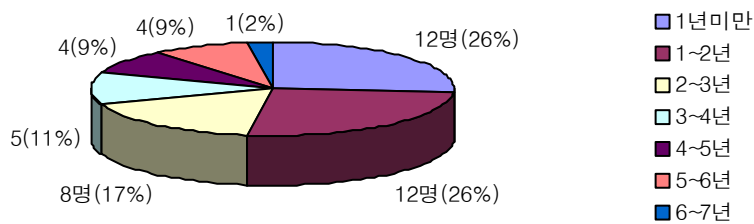
성폭력의 경우 본인이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강제로 자신의 몸을 만진 경우는 9명으로 26%였고 이 중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있었던 경우는 4명(8.7%)이었다.

#### (4) 가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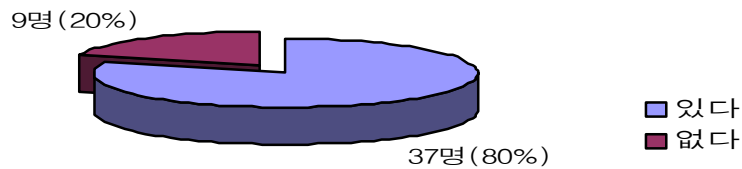
입소 청소년 46명 중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는 37명으로 80.4%를 차지했다. 이 중 가출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는 15명(40.5%)으로 나타났다. 가출 후 시설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등)는 37명 중 20명으로 54%가 시설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입소 기간

입소기간은 1년미만와 1~2년사이가 각각 12명씩으로 2년이하의 청소년이 52.2%를 차지한다. 2~3년사이가 8명(17.4%), 3~4년 사이가 5명(10.8%)이고 6~7년 사이의 청소년도 1명이 있다.



## 2) 진로 및 자립에 관한 현황 파악



현재 입소한 청소년 46명을 대상으로 현황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26명(56.6%)이 취업이나 진로라고 대답하였고, 사람과의 관계와 경제적 문제가 각각 6명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들꽃피는 마을에서 가장 도움 받고 싶은 부분은 자립과 취업준비가 25명(54.3%), 진로지도가 22명(47.8%)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현재 자신의 가장 큰 고민거리

내 용	명(빈도)	백분율(%)
취업이나 진로	26	56.6
사람과의 관계(친구, 교사, 가족)	6	13
경제적 문제	6	13
기타(없다, 학교 등)	8	17.4
총	46	100

※ 들꽃피는 마을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도움(복수응답)

내용	명(빈도)	백분율(%)
자립, 취업준비	25	54.3
진로지도	22	47.8
상담	8	17.4
기타(경제적문제, 사랑, 없다 등)	6	13
총	61	132.5

※ 자립 시 가장 필요한 것

내 용	명(빈도)	백분율(%)
직업훈련 교육(컴퓨터, 자동차, 요리 등)	11	36.7
진로상담 및 직장 예절교육	5	16.7
자금관리 기술(저축, 가계부 작성 등)	5	16.7
대인관계 훈련(대화기술, 자기감정 조절 등)	4	13.3
가사관리 기술(장보기, 요리, 청소 등)	3	10
기타(다양한 경험, 모르겠다)	2	6.6
총	30	100

자립 준비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직업훈련 교육이 11명(36.7%)으로 가장 높았고, 일상생활기술인 자금관리기술 5명(16.7%), 대인관계 훈련 4명(13.3%), 가사 관리 기술 3명(10%)으로 합하면 40%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들

꽃피는 마을에서 자립준비와 관련해서 바라는 점이 무엇인냐는 질문에는 자립준비에 관한 정보제공 19명(63.3%), 구체적인 직업훈련 19명(63.3%)으로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기술교육은 13명(43.3%)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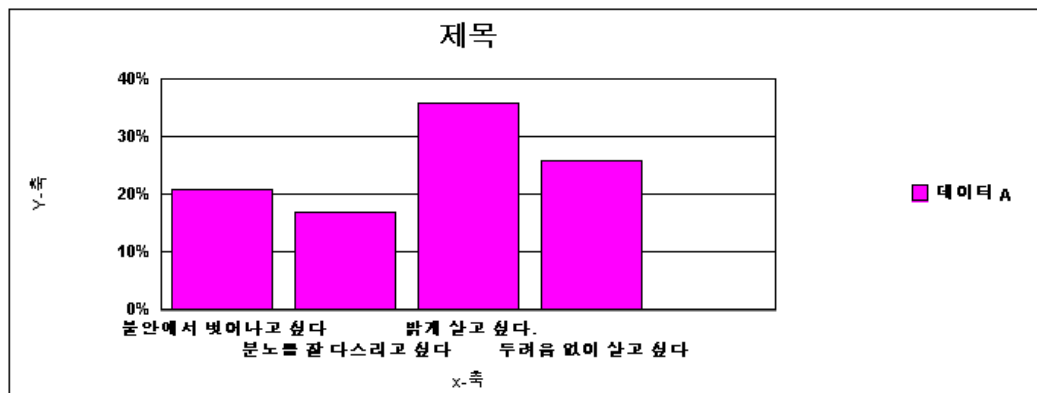
※ 자립 준비와 관련하여 들꽃피는 마을에 바라는 점 (복수 응답 가능)

내 용	명(빈도)	백분율(%)
자립을 준비에 관한 정보제공	19	63.3
구체적인 직업훈련(학원, 인턴쉽 등)	19	63.3
취업알선	14	46.7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교육 (요리, 자금관리, 지역기관 활용, 대화기술 등)을 제공	13	43.3
후원자 연결	9	30
정기적인 상담	4	13.3
총	78	259.9

### 3) 정서 및 지적 능력 파악

이 자료는 상담 팀에서 2002년 겨울에서 2003년 초에 실시하였던 자료이다.

< 정서통계표 >



위의 통계표로 보아 본 기관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어두운 마음과 두려움, 불안, 분노가 많음을 예시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정서적으로 무기력과 의욕 상실, 낮은 자존감도 함께 가져오게 되는 것을 행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 < 전체 지능 통계 >

IQ범위		
130이상	최우수	
120~129	우수	2%
110~119	평균상	2%
90~109	평균	22%
80~89	평균하	33%
70~79	경계선	26%
55~69	교육가능급 정신지체	11%
25~54	훈련가능급 정신지체	4%
24↓	요 보호 정신지체	

※ 지능 지수는 K-WISCⅢ의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평균과 평균하, 경계선급의 퍼센트가 집중적이다. 이는 기초 학습이 가장 필요할 때에 가정의 위기를 겪어야 했기 때문에 이 곳에 있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나이에 비해 기초 학습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 2. 프로그램 소개

청소년들의 자기 진로와 관련하면서 능동적인 참여와 성취감을 맛 볼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1) 장학 PROJECT 공모

### (1) 취지 및 목적

본 사업은 들꽃피는 마을 내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신의 꿈과 진로 및 특기 적성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업 공모 형식을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명확히, 구체적, 실천적으로 세울 수 있으며 학습의 성취감과 동기 유발에 큰 유익함이 있기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2) 기대효과

- 경제적 제약을 벗어나 꿈과 진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는다.
- 사업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 특기 적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
-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갖는다.
- 사업 공모의 여러 경험을 통해 경력 사항의 장점을 갖을 수 있다.

### (3) 장학사업 내용

구분	모집	자격
1) 진로 지원사업 I	수시	일반학교 재학중인 17세이상 청소년
2) 진로 지원사업 II	수시	들꽃피는 학교 재학중인 17세이상 청소년
3) 학습·특기적성 교육 지원사업	정기	들꽃피는 마을 17세미만 청소년
4) 외부지정사업	비정기	들꽃피는 마을 청소년 누구나
5) 기술지원사업	비정기	들꽃피는 마을 청소년 누구나
6) 자립지원사업	정기	들꽃피는 마을 19세이상 청소년
7) 근로장학사업	정기	들꽃피는 마을 19세이상 청소년

## 2) 들꽃피는 학교 교과과정 소개

### (1) 목적

- ① 학생들이 학습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 ② 학생들의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도록 돕는다.
- ③ 학생들 개개인의 개별교육을 실시한다.

### (2) 교육대상 범위

- ① 교육대상
  - 들꽃피는 마을의 전체 학생들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 ② 분반의 기준
  - 중등반 16세 이하
  - 고등반 17세 이상

### (3)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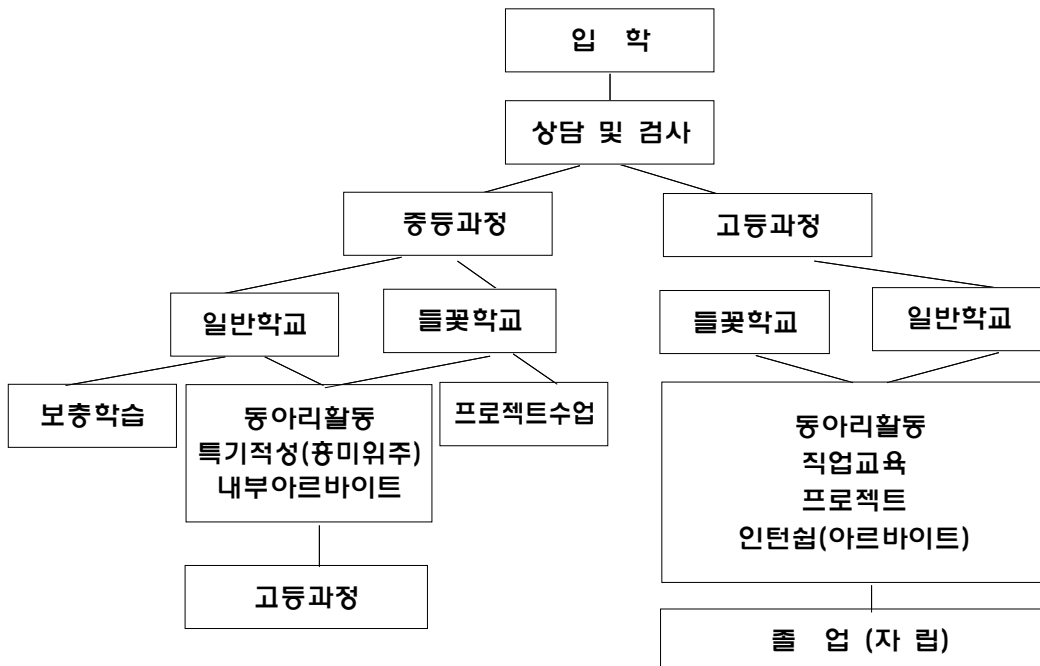
#### ① 중등과정 ( ~ 16세)

- ◆ 개인의 학습, 생활, 심리 상태를 조사하여 개별적인 지도
- ◆ 다양한 경험활동 중심. 욕구(꿈)를 경험해 봄으로써, 구체화,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도움.
- ◆ 현재 운영되는 교과과정을 보완하여 진행함.
- ◆ 짜여진 집단 시간표와 강의담당 교사로 운영됨.
- ◆ 프로젝트 수업 도입 - 2학년
- ◆ 장학위원회의 장학프로그램으로 진학을 위한 학습활동
- ◆ 특기적성 활동
- ◆ 지속적인 직업특강으로 진로선택에 폭을 넓힘.

## ② 고등과정 (17세~2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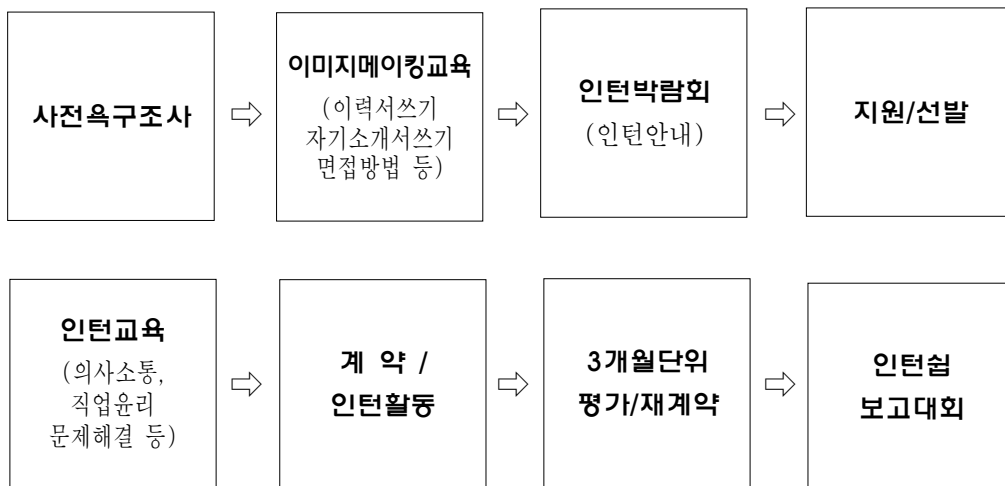
- ◆ 모든 교과과정을 프로젝트와 인턴쉽(아르바이트) 수업으로 전환.
- ◆ 학기 전, 학생 개개인의 진로선택과 준비과제 확인.
- ◆ 준비과제에 따른 교과목 및 시간배정
- ◆ 공통적인 교과목은 팀프로젝트로 운영
- ◆ 개별적인 교과목은 개인프로젝트 운영
- ◆ 학습목표와 평가방법도 각 프로젝트별 진행
- ◆ 인턴쉽(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심화교육
- ◆ 직업윤리, 의사소통훈련 등의 직업인소양교육
- ◆ 지속적인 직업특강으로 진로선택의 폭을 넓힘.

## ③ 교과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교육흐름도



#### ④ 인턴쉽과정

- ◆ 멘토링 (Mentoring) 시스템 적용
- ◆ 멘토는 외부전문가로 하고, 들꽃교사는 코디의 역할
- ◆ 코디를 맡은 들꽃교사는 자신과 관련된 분야에 인턴쉽을 하는 학생들 1명~3명의 학생들을 담당한다.
- ◆ 3개월 단위로 계약 및 평가한다. 평가는 멘토와 코디, 학생본인
- ◆ 1년 1회 인턴쉽 보고대회를 열어, 전체 인턴쉽프로그램을 점검, 평가한다.
- ◆ 인턴현장은 마을의 각 현장과 외부 기업체등으로 한다.
- ◆ 인턴현장
  - 마을/학교 내 (사무국/학교에서 창출)
  - 즉시운영 가능한 현장 : web 1인, 소식지편집 1인, 은행업무 1인, 상담 1인, 영상 1인
  - 창업 (비즈/알뜰 옷방, 청소 등 - 학생들의 기획과 신청, 멘토의 지도 하에)
  - 외부기업체 (아르바이트 포함)
- ◆ 인턴쉽 과정의 교육흐름도



### 3. 프로그램 참여자의 구체적 사례

이제는 실제로 과거의 방황과 어둠을 뒤로 하고 꿈꿀 수 없었던 무너진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이제 심기 시작한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2004년 겨울을 시작으로 12명의 친구들이 저마다 꿈을 찾아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 2 명의 친구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자 한다.

#### 1) 홍렬이의 이야기

홍렬이는 18살이며 일반학교를 자퇴하고 현재 들꽃피는 학교(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꿈을 키우고 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는 바람에 친척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말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친척집에서 중학교 3학년 까지 다니고 중간에 가출을 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집을 나온 친구들과 방황을 했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춥고 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들꽃피는 마을을 소개받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하지 못해 또 자퇴를 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공부와는 전혀 맞지 않구나’ 그래서 저는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찾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러서 들꽃피는 마을 직업 특강에서 증장비라는 기술을 알려 주려 오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말을 듣고 ‘이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주 열심히 정성을 다해 프로포절을 썼습니다. 몇일 뒤 결과가 나왔는데 붙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요즘 저는 증장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사회 적응 훈련을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공부와는 담을 쌓고 지내온 내가 이렇게 원하던 것을

하게 되니 요즘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기분이 좋습니다. 맨날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처럼 맨날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에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저처럼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는 일을 찾아 했으면 합니다. 하기 싫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커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후회를 할 바에는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똑같은 것만 가르쳐 주니 정말 학교 다니는 게 지립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살면서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웬만한 기초만 있으면 불편함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전에 다니던 학교 친구들을 만나는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너 왜 자퇴했냐?”며 한심하게 보던 친구들에게 “나는 꿈을 찾는 아이....이러이러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계획은 적응훈련을 끝나치고 아주 전문 직업학교에서 1년 안에 중장비 자격증을 딸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도 기술을 인정받으면 매우 유익할 것 같고 경력을 쌓기도 하면 나와서 중장비 운전기사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작성한 장학 프로젝트 양식 내용입니다.



◆ 프로그램 개요

성 명	김홍렬	생년월일	1987 년 7 월 30 일생
가정명	한신예수가정	성 별	남 · 여
학교명	들꽃피는 학교		
제목	중장비 학원 장학금 신청서		
장학금 신청 이유	중장비 면허를 따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자 합니다. (중장비 자격증을 따서 훌륭한 직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기 간	2004년 9월~(최소 1년 안에는 꼭 따는 것을 목표로 함)		
비 용	총 90만원		
	구체적 계획	안양 한독학원 (2시~4시) 이론+실기 포함해서 90만원 (학원에서는 2년 안에 따면 추가 비용이 없음)	
하고 싶은 내용	중장비(굴삭기, 로울러, 카고 크레인)등 중장비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자격증을 꼭 따고 싶습니다.		
예상되는 결과 또는 좋은 점	제가 원하던 일을 할 수 있어 열심히 배우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생각하는 생활신조처럼 멋진 사 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자기 소개서

살아온 이야기	<p>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집을 나가서 같이 살지 못하고 작은 아버지 댁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공부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다른 일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히 내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하던 중 다니던 교회 집사님을 만나 들꽃피는 마을을 소개 받았고 들꽃피는 마을에서 적응하면서 내 진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다 보니 중학교 졸업장이 필요해 중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었고 남은 1년을 잘 채워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어서 자퇴를 하게 되었고, 진로를 찾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는데 중장비라는 좋은 직업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의 권유와 저의 의지로 중장비를 하려고 합니다.</p>
자신의 성격	<p>차분하면서 집중력이 강하고,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그리고 활동적입니다.</p>
생활신조	<p>‘도움 받는 나’ 말고 ‘도움 주는 나’가 되자 입니다.</p>
신앙관	<p>하나님께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시고, 교회를 빠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믿습니다.</p>
자신의 꿈과 비전	<p>저의 꿈은 중장비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꼭 중장비 기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p>

## 2) 은혜의 이야기

은혜는 16살이며 중1에 자퇴를 하고 들꽃피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일찍부터 ‘파티 플래너’ 라는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열심히 키워가고 있다.

작년2월 처음 들꽃피는 마을에 입소를 하였다. 그 후로 1년8개월 뒤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 속에 아주 많은 일이 있었다. 처음 들어와 선택했던 일반학교의 자퇴, 2개월간의 가출, 처음1년 동안 난 낯선 환경의 적응을 하지 못했고, 겉돌고 방황하며 점점 나 자신을 힘들게 했고,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다.

그런 1년 동안 나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

집에 돌아올 때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들, 같이 웃으며 밥 먹는 사람들,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사람들, 처음이었다. 행복했다. 편하게 웃어볼 수 있었다.

들꽃피는 마을이 나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다. 그렇게 많은 변화가 시간이 지났고 나도 점차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법을 알아간 것이다. 그리고 꿈이 생겼다.

처음에는 그저 꿈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내 주위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던

미용을 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던 중 나에게 파티 플래너 라는 새로운 꿈이 나타났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알게 된 직업, 처음에는 지금까지 내가 전혀 들어 보지 못한 직업이라는 호기심 때문에, 알아보게 되었다.

파티 플래너는 파티 기획, 전체적인 파티 테마 선정부터 세부적인 프로그래밍, 파티 당일 날 파티의 원활한 진행까지 총 책임을 담당 하는 직업이라고 나와 있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문화 파티!!!

어떻게 보면 사치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파티가 나에게 꿈이 되었다. 그렇게 파티 플래너의 관심을 보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포저 이라는 기회가 나를 찾아왔다. 프로포저 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파티 플래너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문적인 파티 플래너 학원은 거의 없다는 결과와 함께, 설령 있다하더라도 비싼 몇 백 만원 상당의 학원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사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티 플래너 대부분이 단과 대학을 졸업해 [예를 들어 푸드 스타일리스트과, 이벤트학과, 등] 일하고 있거나, 실제로 파티에 참여하면서 파티 플래너의 길을 걷게 된 게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번 프로포절을 준비하며 또 다른 사실하나를 알아냈는데, 그건 파티 플래너가 갖추어야할 자격조건 같은 것들이었다. 우선 적으로 파티 플래너들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도 많아야 하는 것 같았다. 레크레이션, 푸드스타일, 마술, 풍선아트 등 여러 가지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파티 플래너가 그것들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직업이든 간에 그 분야에 프로가 되려면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시킬 때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란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프로포절을 제출하고 드디어 발표 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던가, 아쉽게도 프로포절이 떨어지고 만 것이다. 그렇게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라는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복 받쳐 올라 끝내는 울고 말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2기 프로포절을 또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프로포절을 냈고 그 결과 드디어 내 프로포절이 뽑힌 것 이었다. 그런데 이번 프로포절을 쓰면서 느낀 것이 참 많았다. 우선 프로포절을 통해 내 꿈을 다시 한번 찾고 깊이 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내 스스로 그런 계획서를 쓰고 예산을 알아 보면서 그냥 막연히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보다 확실히 틀리다는 것이었다.

학생스스로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는 자신의 손에 달린 것이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관심 있는 것 나 자신을 그동안 너무 숨겨 두려고 했던 것만 아닐까 하는 생각 이 들 정도로 프로포절이 나를 변화 시킨 것 같다.

나의 야심만만 꿈 찾기 프로젝트 계획서를 소개할까 한다.



◆ 프로그램 개요

성 명	이 은 해		생년월일	1989 년 11 월 26 일생
가정명	인애 해바라기 가정		성 별	여 자
학교명	들꽃피는 학교			
프로젝트 제목	파티플래너!!! 이.은.해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목적: 파티플래너가 되기 위한 과정 밟아나가기 목표: ➡1단계 : 풍선아트 3급 자격증 취득 ➡2단계 : 마술 초급과정 3개월 수강			
시행기간	2004년 7월부터 ~ 10월 까지			
예산	총 1,000,000 원			
	구체적 계 획	1단계<1달 기준> 교통비:8천원 비용: 재료비+강의비=15만원 한국 풍선 협회 자격증 발급비=2만8천원  2단계 <마술> 마술 초급과정 3개월: 57만원 교통비 :10만원		
프로그램 내용	1단계 <풍선 아트> 1. 풍선의 이해(요술풍선 기초 5시간*풍선의 종류, 요술풍선 기법) 2.요술풍선의 응용 (3시간) * 풍선장식의 기초 (2시간) 3.풍선장식의 중급(3시간) * 헬륨장식 (2시간) 4.풍선장식 고급(5시간) * 풍선 조형물 만들기 5.환타지 플라워(3시간) * 풍선 공예 (2시간) 6.SDS 판넬 (2시간) *마케팅 (3시간)  2단계<마술> * 1.마술 초급과정 [카드,동전,생활마술]			
기대효과 및 결과물	1. 풍선아트3급 자격증 2.배우는 과정 마술일기쓰기			

## ◆ 자기소개서

<p><b>살아온 이야기</b></p>	<p>나는 원래 꿈이 없었다. 들꽃피는 마을에 처음 들어 왔을 때 어느 선생님이 꿈이 뭐냐고 물어 봤을 때 없다고 대답했었는데 집에 돌아가서 왠지 부끄러웠다. ‘공부 몇 등 하나?’ ‘엄마 아빠 계시냐?’ 그 어떤 질문에 답할 때도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았는데 ‘꿈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정말 부끄러웠다. 나는 할아버지네서 살았다. 그때는 꿈, 장래희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었다. 잦은 가출로 인해 붙들려 들어가면 맞는 게 일어었고 항상 대화보다는 몇 대맞고 반성문 쓰고 그냥 그렇게 끝나기가 일쑤였다.</p> <p>한번도 나에게 진심어린 말로 ‘요새 고민 있니?’ ‘힘들어?’ 라고 물어봐 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나마 내가 믿는 아빠도 잦은 교도소 생활로 인해 몇 년씩은 만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 뭐하셔?’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말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p> <p>항상 자신감 없고 남 앞에 나서려면 몇 번이고 뒤돌아서고 내가 먼저 뭘 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당연히 한번도 없었다. 처음에는 날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후회도 했었다.</p> <p>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변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도 하고 남 앞에서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은 않다. 항상 뚝뚝하고 멋지게 당당하게 그렇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이은해가 되고 싶다.</p>
<p><b>자신의 성격</b></p>	<p>단점: 한 가지 일에 열중하지 못하고 금방 싫증낸다. 잡생각이 많다.</p> <p>장점: 맡은 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저것 새로운 걸 찾고 싶어 한다.</p>
<p><b>생활신조</b></p>	<p>세상의 중심은 나다 - 내 인생은 주인공은 이은해다. 그러니까 두려워말고 항상 뚝뚝하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자.</p>
<p><b>신앙관</b></p>	<p>요새는 교회 나가기가 너무 귀찮다. 의무라서 억지로 나가는 기분이다. 그래서 일부로 늦을 때도 있고 내가 힘들 때만 하느님을 찾는 것 같아 걱정이다.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p>
<p><b>자신의 꿈과 비전</b></p>	<p>내 꿈은 파티 플래너이다. 바쁜 생활에 치여 짜증과 스트레스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1년에 딱 한번뿐인 생일과 기념일 등을 내손으로 직접 기획하고 만든 파티장에서 사람들을 웃게 하고 싶다. 내가 파티장에서 느꼈던 아주 조그만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 내 꿈이다. 아직 파티 플래너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 교육기관이 거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파티플래너들은 파티가 주는 매력과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에 매력을 느껴 직접적으로 뛰어들어 경험을 쌓거나 전공과 상관없이 활동 또는 푸드 스타일리스트와나 시각디자인 등 단일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나도 앞으로 파티 플래너 과정을 밟아나가서 오는 손님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파티 플래너가 되고 싶다. “파티플래너 !!! 이.은.해 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p>

### III. 결론

이 외에 다른 친구들도 위의 친구들처럼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아직 그 꿈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어떤 꿈을 꾸고,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많이 보면서 탐색해 가고 있다.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는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던 친구들이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나설 때에 보람과 의미가 있으며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의 내용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에게 동기 부여 학습에 있어 중요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

가정의 폭력과 가출을 일삼는 위기 청소년들은 동정의 대상도 아니요 보호해야만 할 위로의 대상도 아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수혜 대상자로서만 생각 한다면 그들 자신 또한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들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밖에 버려진 고양이가 불쌍하다 하여 안에서 극진히 보호만 한다면 몸만 비대해 고양이의 특성으로서 제 구실을 못하는 것과 같다. 이들에게도 여느 아이들처럼 무한한 가능성과 재능이 많다. 다만 가정의 위기로 기회를 좀 잃었을 뿐이다. 꼭 지적능력만을 요구 하는 공부가 아니어도 각각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해 주고 특성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운영의 주체로 인정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환경 운동가로 세울 수도 있다.

#### 2) 자기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의 필요성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스스로 자립하고 인생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부모의 뒷받침과 능력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렇기에 자기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대부분 학교 학습 하면 교사가 내용을 정리해와 강의식으로 학생들에게 전하면 학생들은 받아 적기만 하는 식이 많다. 그러다 보면 주어진 것 외에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해 보고 가능성을 타진해 보며 능동적으로 진로와 자립에 관해 설계도와 청사진을 그려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때 교사는 코치의 역할과 동기 부여자로서, 정보자의 역할이 되 주어야 하겠다.

### 3) 자신의 인생을 살아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을 배우는 학습 내용의 필요성

기초 학습이 부족한 위기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공부에 흥미를 잃고 중도에 포기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청소년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학습(진로 및 자립 교육)을 통해 배움의 욕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며 그 다음에 기초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 4)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기회의 제공 및 투자

위기 청소년들은 기회와 물질적인 면에서 제약이 많다. 이 사회는 과거에 가정의 위기를 겪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물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어리고 부족하다 해서 쉽게 뒤로 빠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장미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안목과 아낌없는 투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마치려 한다.



# 지 정 토 론

## 가출청소년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위한 제언

김 영 란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소장)



# 가출청소년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위한 제언

김 영 란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소장)

## ♠ 들어가는 말

최근 출산율이 1.17에 이르고 0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인구가 총 인구의 4분의 1로 감소한 것을 두고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노동력 감소와 이로 인한 성장지연, 노인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출산율과 청소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 등이 속속 제안되는 것을 보며 이미 세상 밖으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약 1,200만 여명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과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학령기에 있는 약 100만 여명의 아이들이 방과 후 홀로 방치되고 있고 가정해체에 따른 결손 어린이가 약 38만 여명, 한 해 약 10만 여명의 청소년이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특히 성매매 유입여성의 약 70%이상이 10대에 성산업에 유입되었다는 보고는 청소년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가 과연 존재하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출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만성화되어지고 있고 특히 범죄와 성매매 유입 등 2차적 위험에 노출되는 등 가출에 대한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출은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성장기회를 상실하는 계기이면서 학업중단과 이로 인한 취업능력의 저하, 가출 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취업이나

근로권 침해를 당하면서 생존을 위협받기도 하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극소수의 비행을 저지르는 못된 아이들로 취급당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의뢰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하는 장애가 되고 있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주로 민간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 단체의 능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단편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제공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오히려 거리와 보호시설을 시계추처럼 오고가면서 가출을 만성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 가출청소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출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출청소년통합지원센터설치, 빈곤대물림 방지대책, 신고제도, 쉼터 확충, 청소년 안전지역 설정, 가출청소년을 위한 Hot-line 설치 및 신고전화 통합 등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대안들이 제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부서의 부재와 가출원인의 복합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며 제대로 실행되어지지 않아왔다.

앞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제안한 발제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발제자가 제안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기발견시스템 구축-보호시설의 질적, 양적 증대 및 전문화-네트워크 및 사회 환경 변화의 3가지 면에서 그 문제점과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가출청소년보호법 등 가출예방을 위한 법령이 제정되어 제도적 장치가 보장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 향후 과제 및 제언

## 1.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 1) Hot-line 운영

가출한 청소년의 70%이상이 일시적 충동으로 가출한 청소년이며 첫 가출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가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또 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복귀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가출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의 설치와 긴급전화 운영, 이러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홍보 그리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가출 청소년을 위한 긴급전화는 부처에 따라 3~4개에 이르고 있으며 상담전화 역시 지역별로 운영·홍보되고 있어 오히려 정보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해 온 02-1388 긴급전화는 지난 1년간 4,788건으로(가출, 성매매, 학교 폭력 등 위기 상담이 대부분) 지난 5년간의 매년 평균 건수보다 높은 것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직접적인 서비스가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현재 각 부처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긴급전화를 단일화하여 홍보를 하는 것은 구조요청통로를 통일하고 청소년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며 특히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Hot-line은 단지 전화 번호통합만이 아니라 24시간 운영과 실제 구조활동, 일시보호가 가능하도록 인력과 예산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 2) 구조 및 긴급보호 활동

청소년이 가출 후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조요청을 한다고 해도 인력과 예산 그리고 기동성의 한계로 인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호시설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전화상담기관 역시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지만 운영주체, 전문 인력배치, 예산 등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 및 종류도 다르게 제공되거나 24시간 운영되지 못하여 실제 구조활동과 일시 보호, 연계활동 등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을 위한 긴급전화를 단일화하고 이를 각 지역 센터를 두고 24시간 직접 구조활동과 긴급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구조활동은 위기상황에 실무자가 직접 찾아가 구조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과 강한 유대감을 갖게 하고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직접 구조활동은 Hot-line 운영과 함께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긴급 센터는 구조 후 일시적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고 하고 보호하는 곳으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운영되거나 기존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 3)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조직적 네트워크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거리, 공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결시켜줌으로써 이차적인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일정한 시설에 입소하여 집단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자유로운 형태의 상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위기조정, 거처와 건강증진 등에 대한 정보제공, 다른 보호시설에 대한 소개 및 그 시설로 동행을 해줄 수 있으며, 성병, 성폭력, 근로권

침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정한 장소에서의 지속적인 심야 거리상담은 가출청소년들과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수립케하여 청소년이 휴식을 취하고 거리의 생활로부터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쉼터와 가출관련 기관에서 일정한 지역을 정해 정기적으로 심야길거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의 기관들만이 연대하고 있으며 각 개별기관차원에서 홍보와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심야 길거리 상담을 하는 기관들간의 연대를 통해 구조 및 상담매뉴얼의 공유, 서비스 제공 정보에 대한 공유, 중장기 시설과의 연계 등 가출청소년들의 조기 발견과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효율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현재 동대문, 여의도 등 가출청소년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가출청소년들이 찜질방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지낼 수 있는 곳에서 지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유동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절기에는 동사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별, 기간별로 순환 책임제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 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가출한 청소년에게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게임방은 일시적인 피난처이기도 하며 많은 생활과 오락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며 때로 2차적인 위험에 처하는 매개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러한 업소들은 가출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가출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시설로 연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차 비행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역사회내의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게임방, 24시간 편의점, 약국, 음식점, 찜질방 등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안전망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안전망은 가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며 즉각적인

연락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지지망이다. 그러나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크지 않아 안전망의 질적, 양적 증가 및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직접적인 포상, 사회적 포상 및 홍보 등의 동기부여활동이 필요하다.

## 2. 보호시설의 질적, 양적 증대 및 전문화

### 1) 보호시설의 질적, 양적 증대

가출청소년은 성장환경, 가출한 나이와 가출기간, 가출횟수, 가출한 이후의 경험 등에 따라 독특한 특성과 요구도를 지니고 있다. 그 특성과 요구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쉼터와 그룹홈 등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연계체계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내몰려지거나 분리되는 데서 입은 심리적인 상처가 큰 가출청소년의 경우 기간에 따른 시설분류는 오히려 청소년에게 또 한번의 상처가 될 수 있다. 즉 위기에 처한 청소년은 자신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신뢰와 친밀감을 가지고 적응하는 중에 기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중·장기 시설로 보내지게 될 때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적응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가출청소년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느냐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겠지만 자신이 관계를 맺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존재가치와 자존감, 자활의지를 갖는다. 따라서 보호기간에 따라 시설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구조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긴급쉼터를 운영하거나 지역별로 대표적인 보호시설에서 일시적인 긴급쉼터를 운영하고 중장기보호시설 그리고 일정한 나이, 또는 준비가 된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는 자활지원시설 등으로 차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출청소년 중 정신장애가 있는 청소년 및 동성애 청소년 등 보통의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기 어려운 특성들을 지닌 청소년들이 있으므로 차별화되고 특성

화된 전문상담사가 필요하다.

민간기관에서 운영되고 시설들은 대부분 조직이나 재정이 소규모이다보니 시행되어지는 사업의 규모역시 비슷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간시설들을 규모화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각 보호시설의 열악한 재정과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부족은 가출청소년보호정책을 실시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장 의심케하는 부분이다. 상담사의 아이들과 실무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오히려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고 실무자는 소진하게 하여 이직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확대와 관리부처의 통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2) 가출 실무자를 위한 전문가 과정

가출청소년 시설 및 기관의 실무자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없다는 점도 시설보완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가출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는 상담과 구조, 보호, 자립지원활동 등 다양하고 복잡적이며 주로 관련학과 졸업자들이 실무자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과 관계를 맺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의 문화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이 겪은 심리적, 사회적 경험은 때로 실무자들의 삶의 반경에서 벗어난 경우들이 많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호시설 실무자의 높은 이직율은 낮은 급여와 과로도 있지만 자신이 돕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도 크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실패와 좌절이 예상되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공유되지 못하는 데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 많은 가출청소년이 충격적인 경험과 좌절, 분노, 무력감 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들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과 그리고 보다 전문적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장

애나 동성애적 성향의 청소년 등 특성에 따른 쉼터의 설립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단계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3) 연계체제구축

가출청소년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기관, 가정, 시설들이 서로 연계하여 지원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 간의 연대, 성매매 유입예방 및 구조활동 그리고 보호시설들간의 연대, 가족강화지원기관, 대안학교, 취업훈련기관 등과의 연대 등이 필요하다. 각 시설들 간에 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어 이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단위가 있지만 그 협의회간, 그리고 지역사회내의 자원들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 4) 자립지원시설의 확대

가출과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사회복귀, 자립을 위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성매매의 경우 재유입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립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며 직업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그램,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임대주택 및 자립지원금 제공, 멘토-멘티 후원자 연결 등 실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자활지원관 등에서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지만 가출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은 수행은 개별 시설들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단지 직업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 향상, 진로의 욕 고취, 대인관계훈련, 기초학습능력 배양, 사회기술 능력 향상, 진로지도 프로

그럼 등 다양하고 기본적인 과정들이 포함된 진로지도 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 3. 네트워크 및 사회환경 변화

가출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며 보호와 적절한 서비스제공을 통해 가출로 인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이 비행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자원들을 긴밀하게 엮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실제 지역사회 자원을 안전망으로 묶어내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비행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출청소년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어디로 신고하고 의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음을 호소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자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는 가출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기발견하며 시설의뢰를 하는 기능도 있지만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출을 예방하고 귀가 후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기능강화 기관들과의 연대, 학교에서의 초기 가출을 조기 파악하고 의뢰, 연대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교사업가, 학교 상담교사와의 연대,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과 법률기관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또 시설들 간에도 소속 부처가 달라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유나 연대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가출관련 기관과 시설 간 네트워크를 위해 청소년업무의 정부내 부처 통합 역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

다양한 관련기관들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중앙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곳에서 가출관련 정보 및 통계, 가출관련 자료의 분석과 시설현황 및 입소상황과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DB 구축을 총괄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가출청소년보호활동은 신고, 상담, 요구도 분류, 사후

관리, 예방활동을 종합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높은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청소년관련업무가 분할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각 기관과 시설들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정보축적, 가출청소년보호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실무자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의 가출청소년보호와 관련한 통합서비스를 중앙센터에서 모두 담당할 수는 없으므로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중앙센터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설립된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가출뿐만 아니라 성매매, 성폭력, 근로권 침해, 학교 폭력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가출 상황에서 성매매, 근로권 침해, 성폭력과 같은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출청소년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해온 유일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내년에 지역센터 설립을 계기로 지역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긴급전화 운영, 보호시설 및 기관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시설 실무자 전문화 교육, 긴급구조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의료지원단 구축 등의 활동을 통해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가출청소년만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서 가출관련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실 네트워크는 보호시설들이 열악하고 관련 자료의 DB화, 정보공유가 안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출 후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실무자가 충분하고 시설에서 제공받는 기본적인 서비스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보다 더 집중적인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 맺는 말

가정에서의 폭력과 방임, 무관심으로 집을 나온 아이들, 돌아갈 집이 없거나 돌아가도 여전히 예상되는 폭력과 가난 때문에 거리를 방황하고 위험에 노출되어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고 치유할 사회적 안전장치는 너무나 미흡하며 오히려 아이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출청소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과 기관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배려역시 너무나 미미하다. 가출예방과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꾸준히 제기되고 오늘 또 다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가출요인이 복잡하고 가출후의 피해역시 심각하여 실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벽들이 나타나겠지만 오늘의 제안을 기점으로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들이 시행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청소년보호 2004-20

가출청소년대책! 어떻게 마련되어야하나?

-대책의 필요성과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

발행인 : 임선희

발행처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편 집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성보호과

전 화 : (02)735-2667

발행일 : 2004. 10. 19

인 쇄 : 아람기획(T.2272-4584)

ISBN 89-8473-211-7